

# 직업교육 거점기관 설립 '탄력'

### 전북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용도 변경 후 사업 추진

특성학교·마이스터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이하 직업교육센터)'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업교육센터 설립 사업이 지난 25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학교→교육연구시설) 조건으로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직업계고 비중 감소, 소규모 특성학교 증가, 취업률 저하 등 직업계고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직업교육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거점 기관으로 △고졸 취

업 지원 △산학협력강화 △신기술·신산업분야 교육 및 연수 등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주공업고등학교 내에 연면적 약 5,324㎡, 총 사업비 280여억원을 들여 4층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의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직업교육센터는 △인재채용관 △산학협력관 △신기술교육관 등으로 구성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교육 및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재채용관은 상시채용관, 상설홍보존, 다목적 강당 등으로 구성해 △직업계고 학과별 교육활동 안내 △학교별 홍보 부스를 설치해 직업교육 정보

전달 △채용 희망 기업 안내와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산학협력관은 취업지원센터, 혁신지구지원센터, 일자리센터, 화상면접실 등으로 구성된다. 취업관련 기관을 한 공간으로 통합해 취업지원 역할을 확대하고, 취업상담, 이력서작성, 이미지 메이킹, 면접교육 등 취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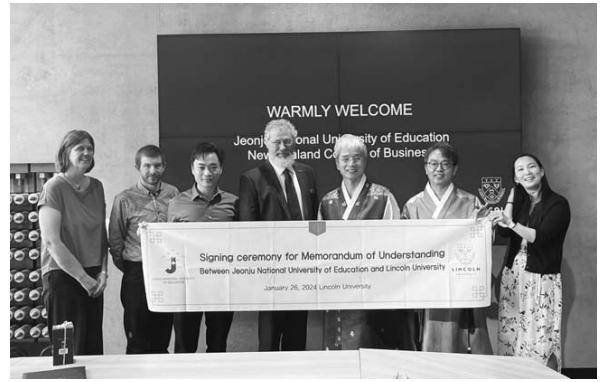
신기술교육관은 온라인수업실, 다목적교육실, 디지털교육실 등을 갖추고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또 반도체교육실, 이차전지교육실, 스마트팩토리교육실, 인공지능교육실, 디스플레이교육실,

빅데이터교육실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공간도 구성한다.

전북교육청은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직업계고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설계부터 교육프로그램 개발까지 직업계고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교육 거점 기관인 직업교육센터 설립이 중앙투자심사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계기로 특성학교·마이스터고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육대학교가 최근 뉴질랜드 링컨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뉴질랜드 대학과 학술 네트워크 구축

### 전주교대, 링컨대학교와 협약 체결 공동 연구·직원개발 프로그램 등 운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최근 뉴질랜드 링컨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링컨대학교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소재하는 국립대학으로 남반구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학교로 그 명성이 높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병춘 총장과 정영식 기획처장은 뉴질랜드 링컨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공동 연구 프로그램 △공동 직원 개발 프로그램 △특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이 합의됐다.

양 기관은 교수들의 국제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학술적 역량을 끌어올리고, 교육 방법 및 경험을 같이 공유하며,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은 "링컨대학교와 국제적인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문문화교류,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등 학문적 성과와 교육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 재학생 10명이 오는 2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링컨대학교와의 첫 해외교육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재훈 기자

## 미래교육연구원, 나이스

### 교무업무 사용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2024년 나이스 교무업무 학년초' 연수를 2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4세대 나이스 개편으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학년 초 교무업무 처리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년 초 주요처리 업무인 학교업무분장관리,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정보관리, 입·진학 방법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성적처리, 학년 말 등 주요업무처리 시기에 맞춰 추가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장익 미래교육연구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담당자들이 학년 초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지난 3일부터 3주 동안의 일정으로 베트남 퀴논시에 43명의 해외 문화교류단을 파견해 교육봉사과 대학 소개, 입시 설명회 등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 전북대 동계 해외봉사활동, 베트남 유학생 유치 '청신호'

### 3주간 퀴논시 고교생 대상 문화교류 등 추진 '큰 호응'

### 현지 고교에 도서관 구축, 시민대상 문화콘서트도 인기

### 전북대, 3월 퀴논시와 한-베트남 우정 약속 공식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까지 진행된 베트남 동계 문화교류활동을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돌아왔다.

전북대는 지난 3일부터 3주 동안의 일정으로 베트남 퀴논시에 43명의 해외 문화교류단을 파견해 교육봉사와 대학 소개, 입시 설명회 등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위해 해외 대학 및 기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전북대는 기존 교육봉사 형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수한 한국문화를 교류하고,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려 유학생 유치를 이어나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봉사활동의 성격을 재편했다.

문화교류단은 활동 기간 동안 베트남 퀴논시 지자체를 통해 연결된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전파 활동과 교육 지원 등을 펼쳤고, 특히 현지 시민들을 위한 문화콘서트를 열어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북대 학생처(처장 김종석)는 퀴논시의 특목고인 레퀴동 고등학교에 책장과 책상, 의자 등을 기증해 실

외 도서관을 구축했고, 이 고교의 독서 관련 동호회에서는 다양한 장르 도서 1,000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곳에 비치했다.

전북대와 베트남 퀴논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오는 3월경 한국 국립대학 대학 가운데 최초로 한국-베트남 간 지속가능한 우정을 약속하는 공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문화교류단 활동이 실질적 유학생 유치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해외 문화교류단과 주요 고교, 대학, 기관 간 연대가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추후 공식 협약을 통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베트남의 우수 학생들이 전북대에 와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호원대, 키오스크 사용법

### 공익광고 제작 협약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9일 오후 3시 지역 및 세대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공익광고 제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호원대학교를 비롯해 금강방송(대표 이한오), 크리에이티브빅터(대표 박보승), 뷰티명가아카데미(대표 강지운)와 4차 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환경이 디지털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지역 및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가 가속화 되어 양극화되고 있으며, 생활에 필수적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의 사용에 있어 노년층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착안해서 본 협약이 구성됐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대학, 지역방송사, 제작사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호원대 산학협력단 정의봉 단장은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고 지역이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지역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대두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의 활력을 일으키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광고 제작에는 호원대학교 유은미(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직접 노년층을 연기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다 현실감 있는 공익광고로 제작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금강방송, 크리에이티브빅터, 뷰티명가아카데미 등 지역의 많은 기업들의 후원과 동참으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시도교육감협, 미국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분석보고서 발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이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래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이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현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참여를 하지 않아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해 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된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인 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다른 학생 및 교원과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강화

###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8일까지 공직기강 점검

### 복무 위반·비위 행위·보안관리 실태 등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 점검반을 꾸려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태도 및 품위 훼손 행위 △명절 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 관리 실태 △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갑질근절 교육 여부와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이다.

아울러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도 점검한다. 후보자 캠프 등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정보 제공 행위, 선거운동 개입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전북교육청은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직기강 점검 결과 격발된 위반·부당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흥열 감사관은 "공직기강 집중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한 지시와 행정 업무 처리, 불성실한 근무 등 공직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하에 행정공백과 공직기강 하이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도내 초등학교수업역량 강화... 실습형 연수 운영

### 전북자치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개념 기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초등교사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혁신 연수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29~30일 이틀에 걸쳐 2층 강당 및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초등 수업 선도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실습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한 초등교원의 이해를 돕고, 실제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습형 연수로 운영한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 깊이있는 이해에 도달하여 삶에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을 의미한다.

최근 교육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학생 중심 탐구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자기주도성, 고등사고력 등 미래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 및 해석 △교과 선택(공통) 후, 조별 이해 질문문과 탐구 질문 개발 △수행과제와 투브리 개발 등이며, △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기준 마련 연구 책임자인 경인교육대학교 은정덕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실습 연수'는 초등교육 현장의 수업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수업혁신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